“자성과 쇄신, 佛都 부산이 앞장서자”

자성과 쇄신을 위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제14교구 범어사·조계종 부산연합회

“5대 결사로 불교·문화 위상 바로 세울 것”

조계종 부산연합회 창립대회 겸해 봉행

부산지역 불자들이 지난 17일 부산 KBS홀을 가득 메우고 민족문화수호와 5대결사 동참을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자들 스스로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고 종교편향을 시정하자”고 법문했다.

불도(佛都) 부산의 불자들이 불교의 자존을 위해 뜻과 힘을 한데 모았다. 지난 17일 부산 KBS 홀에서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된 민족전통문화수호대법회.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스님)가 주최하고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불스님)가 주관해 열린 이날 대법회는 종단 집행부가 추진하는 민족문화수호와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동참 서원을 위해 마련됐다. 사부대중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민족문화수호와 5대 결사의 당위성을 절감하고, 깨어있는 불자 행동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자리를 미처 잡지 못한 1000여 명의 신도들은 맨바닥에 앉아 스님들의 사자후를 경청하는 열의를 보였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참석해 법회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불교중흥을 위한 원력의 결집을 호소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준비된 격려사 대신 즉석에서 소감을 밝히며 부산 불자들의 성원과 호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결사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관해 비장하고 진솔한 메시지를 던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그 어떤 법회보다 여법하고 진실하고 신심 나게 진행되는 법회를 보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부산이 불심이 가장 돈독한 고장임을 실감케 됐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미국 순방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는 ‘지리산 산골짜기 샘물’처럼 존재감이 미미했다”고 아쉬웠던 기억을 술회했다. 무엇보다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종교편향과 불교문화 폄훼를 언급하며 “2000만 불자라는 전대미문의 숫자에 걸맞은” 결의와 결행을 당부했다. 한결 강한 어조로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불교문화유산을 불자들 스스로 지키고, 종교편향을 힘 모아 시정하고, 자성과 쇄신으로 진정한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항상 홀대받는 종교로 남게 될 것”이라며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있어도 굳은 의지로 결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외침도 사홍서원과 함께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마지막으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배 100일 정진을 마치는 날(3월23일) 5대 결사에 관한 구체적인 강령과 지침을 전국 본·말사에 하달할 것”이라며 “부산이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켜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원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리 잡지 못한 1000여명 바닥에 앉아 사자후 경청

실천선언문 낭독에서 절정

이에 앞서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 역시 대회사를 통해 불자들이 먼저 불교를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에 매진하면서 정부가 불교와 민족문화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자며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정여스님은 “오늘날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탁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중되지 않고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함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며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마음을 맑게 하고, 사회를 정화하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성과 쇄신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회는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창립대회를 겸해 의미를 더했다. 수행과 전법에 앞장서 온 지역 중진스님들로 구성된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다양한 교육 및 복지사업을 통해 부산 내 조계종의 위상과 종도로서의 긍지를 높일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수불스님은 봉행사에서 “조계종은 왜곡된 민족문화정책을 규탄하며 민족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구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며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라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는 조계종과 불교의 문화적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법회의 의의를 짚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종교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각성을 촉구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만스님도 각각 축사와 대중연설로 부산 불자들의 단합을 독려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도 힘을 실었다.

고조된 분위기는 실천선언문 낭독에서 절정을 맞았다. 신도들은 스님들과 함께 △민족문화수호와 종교갈등, 불교폄훼 철폐를 위한 임원교육 실시 및 각급 신행단체로의 확대 △문화재수호활동의 지속적 전개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생명과 환경파괴 단호히 거부, 생명사랑 환경수호운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고 수행과 자비실천이라는 불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겼다.

한편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과 부산연합회장 수불스님은 일본 대지진 희생자 및 피해자를 위한 성금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해 또 한 번의 귀감이 됐다.

부산=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외규장각 도서 145년만에 돌아온다

국립중앙박물관, 프랑스와 약정 체결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 환수가 최종 확정됐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의궤를 약탈한 지 145년 만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지난 16일 오후 7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외규장각 도서 환수를 위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이 이번 약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필요한 합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외규장각 도서 297책은 오는 28일에서 5월31일 사이에 4차에 걸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전통의례에 따른 기념행사와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환수 의궤 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뿐 아니라 국내 전문연구자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연구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프랑스 정상 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권에 대해 5년 단위의 갱신 가능한 대여 형태로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왕오천축국전’ 다시 프랑스로

300년 만에 고국을 찾은 신라 혜초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3개월의 전시를 마치고 지난 3월17일 소장처인 프랑스로 돌아갔다. 동아일보 주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실크로드와 둔황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문화예술인 등 약 10만여명이 관람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17일에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스님을 비롯한 500여명이 실크로드와 둔황전을 찾아 관람했다. 〈사진〉 이날 선묵스님은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 문화, 경제, 풍속을 알려주는 최고의 여행기록”이라며 “젊은 시절 세계를 상대로 한 혜초스님의 구도정신과 개척정신을 느낄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kimjc00@ibulgyo.com

“세계1위 가능한 것은 정신문화” 이참 관광공사 사장

“1000년 전 팔만대장경 640권 분량 誤字 없어”

“놀라운 것은 1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오자(誤字)가 하나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혼을 불어 넣었으면 (요즘 책으로)500, 600권의 방대한 분량에도 오자가 하나 없겠는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해 한국인이 되어 결국 외국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기업 대표 자리까지 오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팔만대장경의 정신적 가치에 경의를 표했다. 이참 사장은 지난 11일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스님)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제9차 보살사상 선양법회’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는 매력적인 게 너무나 많다”며 조성 1000년을 맞은 대장경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ibulgyo.com 참조〉

‘관광산업이 희망산업’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날 법석에 선 이참 사장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리하게 집어가며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먼저 알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공연, 예술작품, 고려조각, 고려불화를 보면 ‘기-흥-정’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한국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한국은 이런 에너지가 특징인데 그것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면서 ‘배터리 방전되면 한국 와서 충전하라’, ‘마음을 충전하라. 사찰에 와서 템플스테이 해서 자신을 되찾으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1등할 수 있는 분야 철학이며 그것은 한국의 정신문화”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새로운 정신문화로 거듭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해 수천 년 문화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정체성,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자곡공에 ‘탄허기념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매주 목요일 진행해온 금강선원의 ‘보살사상선양법회’는 이날 이참 사장의 강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선두 기자

“경영개선 방안 보고 광주 사장 임명결정”

불교방송 이사회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의 연임이 보류됐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영담스님)은 지난 17일 가든호텔에서 74차 이사회를 열고 “한 달 이내 경영개선 방안 보고 이후 임명결정”으로 결의했다. 특히 이사회는 광주불교방송 사장 임명과 관련, 광주 인근 지역의 송광사 등 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의 협의 과정을 추가 결의했다. 이사회는 광주불교방송이 지난 1995년 개국 이후 16년 동안 누적 적자가 75억 원인데 반해 기부수입이 고작 8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지적했다. 그간 광주불교방송은 개국 이후 16년 이 사장인 계속 연임해왔다.

한편 이사회는 ‘2010년 결산안’을 승인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뮤지컬 원효’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찬 기자

부처님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

동국대학교 백상원 준공 개원 법회

불기 2555(2011)년 4월 2일(토) 오후 3시, 백상원(서울 화계사 內)

※개원법회 후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주최 48기(2011년도) 신입생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계종단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 인재양성을 위한 일환으로 종비생 제도를 도입하고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를 통한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상원은 낡은 시설과 열악한 환경 탓에
여법한 학문탐구를 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한국불교 도제양성 역사의 현장이자
수행 공간인 백상원을 신축하는 대공정의 닻을 올려 이제 개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단과 석림동문회(동국대학교 출가공동체)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미래 한국불교를 세계만방에 떨칠 도제양성의 요람이 될
백상원 신축 개원법회의 뜻깊은 자리에 많은 스님들과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힘 | dongguk UNIVERSITY
세상을 깨우는 이름

문의 (02)741-9352(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현대적 시설로 신축된 사미, 비구 수행관 백상원(서울 화계사 內).